"박근혜 1심, 정경 유착 단죄 실패했다"

민변·참여연대, 박근혜 판결 좌담회 열어

"정치 권력에 엄격, 경제 권력엔 불충분"

"정경유착 유형 변화 인식도 부족" 총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판결과 관련, "정경유착을 단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열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했지만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18개 혐의 중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여원)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16억여원)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런 판단의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민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서 삼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삼성현안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게 확인됐다"며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삼성을 위해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의미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들 중 하나로 언급한 것에 대해 "향후 형식적인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태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 단체는 "뇌물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재단을 만들어 그 재단을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라며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3자 형식에만 치우쳐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다면 결국 재단을 만들어 뇌물을 받는 권력자들의 편법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등은 재판부가 '변화하는 정경유착 유형'에 대한 인식부족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정경유착 문제를 1970~1980년대식의 큰 이권사업의 인·허가 등 직접 큰 이권을 챙기는 사업으로만 보는 편협된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롯데나 SK의 면세점 특허에 대한 승인 등 이권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권을 챙기는 식이 아니라고 보고 유죄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변 등은 "그러나 2000년대 이래로 국내 재벌들 현안은 2~3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은 자금으로 많은 지분을 승계시켜 경영권을 확보하느냐에 주된 초점이 있고, 이는 결국 다른 많은 주식투자자, 노동자 등의 희생을 전제로 정치권력이 불법을 눈감아 주는 상황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자태 뽐내는 장다리물떼새 분홍색 긴 다리를 자랑하는 장다리물떼새가 10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엄천강 일대에서 노닐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장다리물떼새 부리는 검은색으로 가늘고 다리는 붉은색으로 매우 길다. 물 고인 논, 하천, 수심이 낮은 습지에서 생활한다.

제주서 40대 남성 올해 첫 SFTS 바이러스 감염

4년 새 환자 7배·사망자 3배 이상 급증

질본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조심해야"

제주도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거주 K(41)씨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풀숲 등에서 야외활동을 한 뒤 지난 5일 발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찾아 대증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39도에 달하는 고열과 근육통,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등 증상에 호전이 없자 병원을 옮겨 SFTS 의심 하에 검사를 받았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한국과 중국 등에선 일부 의료진이 환자 혈액 등에 직접 노출돼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4~11월에 발생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환자 607명(사망자 127명)이 확인됐다. 환자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지난해 272명 등으로 4년 만에 7.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도 17명에서 54명으로 늘었다.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흡혈을 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6월, 성충은 6-8월 주로 채집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FTS 감염자 중 50대 이상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도 SFTS 발생 기간 해당 증상을 보인 환자를 진단할 때 SFTS 진단과 2차 감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체계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중"이라며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대성 사이클론 '케니' 피지에 접근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부근을 향해 열대성 사이클론 케니(Kens)가 접근하고 있다고 피지 기상청이 발표, 주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했다.

케니는 10일 한 낮쯤(현지시간)에는 피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피지 최대 도시인 나디의 남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카다부섬 남부에 상륙했을 때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케니의 핵은 현재 나디 서쪽으로 200km 지점까지 진출했으며 시속 20km 속도로 남동남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한 동안은 이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케니의 중심부 속도는 시속 130km이며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85km에 달한다. 피지에 상륙하는 시기는 10일이다. 피지 최대의 섬인 비티 레부, 남부 마마누카스, 카다부에서는 최고 209km의 강풍으로 인해 높이 3.5m의 해일도 예상되고 있다.

3급 사이클론인 케니의 파괴력은 주택과 교량, 항만시설, 전신주와 전선, 큰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다. 이에 피지 정부는 주민들에게 사흘분 비상식량와 재난 대책 상비품을 마련해놓고 집 구조를 보강하며 정전과 대피에 대해 준비해 둘 것을 알리고 있다.

이번 사이클론은 지난 부활절에 6명의 사망자를 낸 사이클론 '조시'에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나타난 열대성 태풍이다.

美서 편의점유통 닭샐러드 먹고 1명 사망

미 아이오와주의 식품회사가 만들어 중서부지역 페어웨이 스토어스 체인점에 공급한 닭고기 샐러드를 먹고 8개 주에서 265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발병했으며 아이오와주에서는 한 명이 사망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했다.

CDC가 6일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은 1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계속되었고 지금은 거의 끝이 났다. 병이난 사람들의 연령은 1살에서 89세까지 광범위했고 그 중 67%는 여성이었다.

시애틀의 식품안전 전문변호사 빌 말러는 식중독 환자 일부는 아직도 중태이며 자신과 아이오와주의 스티브 원드로 변호사가 48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식품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닭고기 샐러드를 만든 회사는 애클리 소재 트리플T 스페셜티 미트라는 육가공회사로 문제의 닭고기를 아이오와주에 본사가 있는 편의점 체인 페어웨이 스토어스 상표를 붙여 각지의 점포에서 판매해왔다.

265명의 발병환자 중에서 94명이 입원했으며 , 이런 종류의 식중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였다고 말러 변호사는 말했다. 그 중 네브라스카주의 한 여성은 1주일이나 중환자실에 있었고 아이오와의 한 남성환자는 대장 대부분을 절제해야 했다. 그는 아직도 제거한 장을 다시 잇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감염자 중 70대 80대의 노인들은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회복하려면 전문 병원에서 몇 주일씩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트리플 티 육가공회사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중이라며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살모넬라 균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그건 검사회사들이 알아낼 것이라며 아직 자기들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은 흔히 이 균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분변에 접촉된 음식물을 먹었을 때에 균에 감염된다.

인도 스쿨버스 계곡 추락 최소 30명 사망

인도에서 9일(현지시간) 스쿨버스가 계곡에 추락하면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30명이 숨졌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뉴델리에서 500km 가량 떨어진 캉그라 계곡에서 일어났다.

히마찰 프라데시주 교통 장관 고빈드 싱 타쿠르는 인도 PTI 통신에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12명의 부상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다수가 10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7세 버스 운전자와 2명의 여성 교사도 숨졌다.

경찰 당국의 초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사는 과속으로 운행했고, 커브길에서 통제력을 잃으면서 6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버스가 42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탑승자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조 당국은 일몰 이후에도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